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6

(지구전)

지금 저는 아무생각없이 전철을 타고 갑니다. 최근들어 조금씩 신문도 훑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생각없이 한가히 지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보니 지금까지의 저의 여행길은 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항상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동식 프라이버시가 어지러운 격동의 나날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정신없이 흐르는 일정 중 한 순간 순간의 짧은 틈이 자신을 유지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호흡이 되었고 안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열차는 좌석 아래나 팔걸이 쪽에 콘센트까지 붙어 있어서 아주 요긴합니다. 더구나 대지진재난 이후에 고속 도로가 무료로 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에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난하거나 다시 자택이나 교회로 일시적 귀가를 할 때 또한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님들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내 전 지역을 달릴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도쿄(東京)와 후쿠시마(福島)간을 왕복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거리를 왕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사회에 대해 경고하듯이 돌연 급 브레이크가 걸리고 시프트 다운(shift down) 된, 현대와 동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무던히 견디어 왔다고 느꼈던 일련의 지진 재해였음에 틀림없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현대문명의 힘을 빌려 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는 콘센트에 컴퓨터를 연결해 사용하며 알게 모르게 현대의 편리함을 약삭빠르게 누려온 것이지요. 어쩌면 더 나은 편리성까지 요구할 지도 모르는 현대병에 물든 좀 걱정스럽기도 한, 지진 재해전과 다른없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화제를 돌려, 요전에 강연장에서 같은 고향 분으로 피난생활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하고 슬퍼 눈물로 날을 새우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구약 성서 예레미야애가 2장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는 슬픔의 예언자라고 불리던 '에레미야'가 활약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외세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국에 포로가 되어 망국의 쓰라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차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포로가 된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을 빼앗기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번에 만난 고향 분의 경우는 피난 중이기는 하지만 그토록 큰 괴로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자신의 집에 야생화한 돼지가 들락거리고 고생하며 정성껏

가꾸어온 전답도 일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만 아연해져서 그자리에 선채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자신의 집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기까지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옛추억으로 가득 차있는 그리운 정든 집이 들짐승들에 의해 항폐화 되어 지금은 완전히 유령의 마을로 변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앞에 두고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지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인한 슬픔, 소중한 것을 잃은 아픔을 수치로 나타낸다면 얼마나 되겠는지요. 또한 마음의 손실감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 그 아픔은 어느 것으로도 가늠할 수 없겠지요.

저희 성도님들도 전국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견디기 힘든 감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모두들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짊어지게 된 짐들이 너무나 무거워 목숨까지 던져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일년에 걸친 피난 생활의 피로는 이미 고개를 넘어 지금은 간신히 여로의 코스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임시 거쳐 생활은 한계를 넘어 어찌면 저희들은 지금 늘어날 대로 늘어난 팽팽한 고무상태에 달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고향 분들이나 저희들은 앞으로 몇년 더 버틸 수 있겠는지요. 이것이 단지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전에 신축한 교회는 물론이고 자택과 학교, 병원이 있었던 거리의 구석 구석과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큰 상실감과 슬픔이 무겁게 제 가슴을 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구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인내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겠는지요. 나쁜 느낌은 어찌면 맥이 풀려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위험구역으로 슬라이딩한 싸인인지요? 아니면 단순한 피로에 불과한 것인지요?

(5월 14일)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각지를 돌며 지진 재해로 인해 맺어진 두쌍의 커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성도님들 간의 결혼식이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지진 재해가 낳은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 재해 이후 주변의 경치도 생활의 리듬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격렬한 진동은 상상도 못했던

정경으로 우리 주변을 탈바꿈 시켜 삶의 리듬과 스피드감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해야할 결혼식인데도 왠지 모르게 서글픈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지진 재해전의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마치 교회 동창회 모임같은 광경을 재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오래간만에 재회한 성도님들이 그리움과 반가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지진 재해 전의 교회 모습이 환상처럼 다시 눈앞에 재현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꿈과 같은 한때도 마치 불꽃놀이 처럼 순식간에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손자가 제 아내에게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쪽 같이 응? 50 밤 더 자고 가 응?"이라고 매달리는 것 같이, 저도 '왜 모두들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하지요? 계속 함께 있으면 안 되는지요?'라며 붙잡고 싶은 심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재해 이래로 처음 재회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식 장은 지금은 환상이 되어버린 마치 고향 교회에서의 부활절 주일이나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같았습니다. 정말 그리웠던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쁘면 기쁠 수록 헤어질 때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어째서 평소처럼 '자 주일 날 봐요' 라고 말하며 헤어질 수 없는 것인지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하며 도쿄(東京), 사이타마(埼玉), 토치기(栃木), 치바(千葉)등으로 각각의 임시숙소를 향해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 모두가 서글픈,,
결혼식이란 경사의 날, 깊이 박혀있었던 지진 재해의 아픔을 또 다시 느껴야만 했던 가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북으로 남으로 또 다시 흩어져 가는 성도님들의 등을 바라보며 보내는 사람들의 눈에는 서로 눈물로써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응시하던 저녁놀도 눈물 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 월 9 일, 나라(奈良)에서)

우베(宇部)공항의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下関) 대학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진 재해 일기를 올리지 못한 채 결국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진 재해후 1 년 3 개월이 지나 제 자신에게 서서히 데미지(damage)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지진 재해 체험 담을 들려드리려고 한 것이, 이래서야 완전히 묵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인지, 기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로감으로 인한 것인지요?

피곤하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분은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진 재해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람들에게 지진 재해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느낄 수 없어 이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지진 재해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니,

“당신은 돌아갈 집이 있어 좋겠네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얘기해서 무서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진 재해가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에게 서로 다른 형태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구나 1년 3개월에 걸쳐서 그 상처로 인한 균열은 극도로 혼미한 상태로 나타나, 어느 때는 이상한 풍경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을 잃고 고향이 사라지고 생활 기반을 몽땅 빼앗기고 아직도 표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겠지요.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 지진 재해 후에 진행 단계입니다. 데미지(damage) 때문이라든가 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모든 것을 어두운 쪽으로만 생각해 스스로가 자멸해 가는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신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번에 고향에 일시적 귀가를 한 어느 슈퍼마켓의 경영자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한 같은 고향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분은 이제까지 힘들여 이루어놓은 자신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무너져 썩어버린 상품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 몰라 앞이 캄캄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언제 누가 또 다시 그런 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살벌한 지구전으로 돌입한 것이지요?

(6월 13일 우베(宇部)공항을 출발한 하네다(羽田)편에서)

슬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슬프기에 어쩔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강연회에서도 저도 모르게 슬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슬픔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기록하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겠지요.

요전에 도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난중이시던 성도님이 90 세를 넘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만약 지진 재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향 교회에 다니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을 겁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성도님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병문안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의식을 잃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 후 의식을 회복한 그녀는 제가 방문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 날까지 가족과 함께 얘기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가족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강연으로 다른 현에 있었고 부목사는 후쿠시마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했습니다. 다행히도 스케줄이 비어 있었던 전도사가 급히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 날의 치른 장례식이 가족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보고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장의사도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피난처에서 천국여행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1 년에 걸친 피난 생활을 가족 분께 물어보니 혼자 생활하던 후쿠시마에서 지진 재해를 당한 직후,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성도님이 찾아가서 그분을 도와 함께 피난용 버스에 몸을 싣고 후쿠시마를 떠난 후로부터 관동지역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같이 하며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도쿄에 있는 따님 댁에 들어가셔서 5 층이나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시며 다리와 허리에 힘을 얻어 거의 매일 가까운 정형외과에 다니시거나, 후쿠시마 자택에도 방호복을 입고 세 차례나 일시적 귀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고향인 홋카이도에도 여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진 재해전에는 홀로 생활을 하시며 몸이 편찮으실 때도 있어 주위 분들도 많이 걱정했을 텐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쿄는 그분이 결혼해서 후쿠시마로 시집오게 될 때까지 생활했던 이른바 청춘의 추억이 담긴 그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도쿄에 살고 있는 가족이 이전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생활하게 된 어머니가 염려되어 도쿄로 오시길 권하셨다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이번의 지진 재해로 인해서 그녀는 예전에 살던 도쿄에 있는 따님 댁에 몸을 의지하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여동생을 문안하거나 옛 친구 들과도

친분을 나누며 건강하게 되어 홋카이도에서 후쿠시마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자매님은 행복한 1년을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만년에 상상도 못했던 지진 재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피난여행을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고의 1년을 선물해주신 것을 생각하니 저도 지쳤거나 더 이상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슬픔이 밀려와도 마음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일견 부조리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정말 오랜간만에 이 블로그를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15일, 쿠시마에서)